

회 · 원 · 사 · 소 · 식

(주)금성사

자사 팩시밀리 BABT서 승인

금성사(대표 韓태희)는 최근 팩시밀리에 대해 영국통신위원회(BABT)의 품질검사에서 합격판정을 획득, 이 규격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 스페인, 호주등에 이의 수출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BABT 시험은 통신기기의 안정성과 호환성 시험으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이에 합격해야 공중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통신기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그 기기를 생산하는 공장자체도 공장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공장심사에 합격한데 이어 최근 BABT 승인을 받게된 동사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지역의 수출에 나설 방침이다.

대우통신(주)

茂朱리조트에 CATV시스템 공급

대우통신(대표 朴성규)이 쌍방울 무주리조트단지에 CATV 시스템을 공급한다.

지난해 12월초 대우는 쌍방울그룹이 무주에 조성중인 대규모 리조트단지에 CATV시스템을 공급, 서비스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우선 단지내의 모텔, 가족호텔, 스키장, 골

프장등을 연결하는 CATV망을 구축한 뒤 '91년부터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선 개통되는 CATV 시스템은 기존 방송을 수신, 재송출하는 5개채널과 경기장 안내 및 자체프로그램 송출을 위한 자주방송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일본 NHK를 비롯, 각종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설비도 갖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전자산업(주)

폴란드 업체와 합작사 설립키로

현대전자(대표 鄭몽헌)가 컴퓨터업체로는 최초로 동구권의 폴란드 업체와 합작법인을 바르샤바에 설립한다.

최근 현대전자는 폴란드의 컴퓨터회사인 셀코(SELKO)사와 50대 50의 비율로 자본금 1백만달러 규모의 「현대셀코社」를 설립키로하고 지난해 12월 3일 바르샤바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에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286PC급의 폴란드 및 소련 수출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합작법인은 주변기기 제공과 에프터서비스까지 담당하게 된다.

한편 현대전자는 이번 합작법인의 설립배경과 관련, 폴란드 경제가 여타 동구 국가에 비해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빠를 뿐만 아니라 전자산업의 내수기반 및 생산기지로서의 잠재력이 크다는 판단아래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성정보통신(주)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개발

데이터 전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원거리의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의 동작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이 개발됐다.

지난해 말 금성정보통신(대표 鄭장호)은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인티그랄 6510NMS가 키보드와 모니터등 6개의 운용자 콘솔을 비롯 4개의 시스템 프린터, 1백 50개의 진단포트, 2천여개의 각종 컴퓨터관련장비를 종합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모뎀과 멀티플렉스 전화회선 터미널 접속등의 상태를 원격진단하고 제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용자에게 광범위한 네트워크 운용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신장애를 미리 막을 수 있고 복구작업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금성은 네트워크 진단모뎀인 GSM3400도 개발, 관리시스템과 함께 공급에 나섰다.

(주)삼보컴퓨터

SWIFT 정보통신 이용시스템 공급

삼보컴퓨터(대표 金宗길)는 최근 그동안 제한돼왔던 스위프트(SWIFT; 국제 은행간 자금결제 정보통신회)의 국내 회선접속이 자유화됨에 따라 스위프트의 자회사인 STS社와 손잡고 국제은행과 국내 금융기관과의 자금결제 업무등 스위프트정보통신 이용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공급에 나섰다.

스위프트는 국제은행간 자금결제업무를 위해 지난 73년 벨기에에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현재 3개의 자회사를 비롯, 78개국 2천7백여 은행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주)아시아나항공

컴퓨터예약시스템 구축

아시아나항공(대표 黃인성)은 해외 유명 컴퓨터예약시스템(CRS) 상륙에 대비, 오는 93년까지 모두 80억원을 들여 종합적인 CRS를 구축키로 최근 확정했다.

동사가 확정한 아시아나 예약 및 여행정보시스템(ARTIS) 구축계획에 따르면 금년중 좌석예약제공 항공사를 현재의 1백 2개社에서 3백여개社로 대폭 늘리는 한편 ARTIS와

SITA(항공정보통신 서비스)의 사하라 및 티마틱시스템을 각각 접속, 세계 각국의 호텔 여행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한편 유럽항공사 중심의 CRS인 「갈릴레오」와 「아마테우스」에도 가입을 추진중인 아시아나 항공은 국내 PC통신 이용자들을 위해 韓經KETEL, 천리안 및 VAN업체들과도 접촉해 일반전화망을 통해 가정예약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포스데이타(주)

2000년 대비 청사진 발표

지난 89년 11월 포항제철의 전산부문과 계열사인 제철엔지니어링의 정보사업본부를 통합, 설립된 포스데이타(대표 成기중)가 지난해 12월 27일 창업 1주년을 맞아 2000년의 고도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청사진을 발표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청사진에서 포스데이타는 장기적으로 ▼VAN을 중심으로한 정보통신분야의 강화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사업 진출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인 光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기술 축적 ▼국제규모의 소프트웨어 유통망 구축 ▼다국적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국제 마케팅능력 배양 등을 목

안 내

본란에서는 회원사 상호간 유기적 관계형성을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 업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행사, 인사, 동정, 신제품 등 각 회원사들의 사내소식을 게재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91년도의 중점사업으로는 PC소프트웨어 유통회사를 설립, 단계적으로 전국유통망을 확충하고 포항,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CATV사업을 추진, 기술력을 확보한 뒤 전국 대상의 종합CATV 방송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데이타는 또 포항공대, KAIST등 연구기관과 공동협력체제를 구축, EDI, OS등 정보통신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는 한편 기술개발에의 투자, 정보체계의 확립, 국제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제도·조직·社風정립등에도 역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통신진흥(주)

전기통신공사용 장비 임대키로

한국통신진흥은 전기통신공

사업법 시행령에 대여장비로 분류되는 공사용 전문장비의 렌탈사업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공사 업체들은 고가의 장비구입에 따른 자금압박을 다소간 덜게 될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장비를 공사업체별로 중복 구입하게 됨으로써 초래되는 불필요한 외화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국통신진흥은 공사업법시행령상 대여장비로 규정된 40개품목중 우선 1차로 광섬유 접속 손실측정기(OTDR)·광섬유용착접축기·광스펙트럼 분석기 등 5억원상당의 9개 기기를 내년 1월과 3월에 각각 구입, 공사업체에 임대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진흥은 이와 함께 대여장비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분석기·프로토콜분석기 등 각종 공사용 측정 장비 및 시공장비도 대여목록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국데이터통신(주)

국제전화사업 준비에 박차

한국데이터통신(사장李응효)이 금년 12월부터 참가하게 되는 국제전화사업을 위해 식별번호 007을 정부에 신청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통신이 001을 식별번호로 사용하고 있어 002~009사이의 번호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데이콤은 「007제임스 본드」 시리즈에 착안, 이용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번호를 채택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데이콤은 AT&T와 국제관문국으로 사용할 최첨단 교환기인 5ESS의 도입계약도 체결했다. 이 교환기는 국제회선 접속용 1천44회선, 직접 가입자 접속용 6백36회선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올 8월까지 서울 용산 사옥에 설치를 완료, 시험가동에 들어간 뒤 12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투입되는 주력기종이다.

정보통신용 光전송로 구축키로

한국데이터통신은 데이터통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금년부터 95년까지 2천1백70억원을 투입, 고속 디지털화된 장거리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키로 했다.

데이콤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91년까지는 서울~부산간 포설돼 있는 한국통신의 광관로를 빌리던 정보통신 이용이 가능하나 92년의 수요는 2만2천5백78회선에 이르고, 96년에는 5만2천8백84회선, 그리고 2000년에 9만1천80회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독자시설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데이콤이 마련한 단계별 구축계획을 보면 1단계인 92년 말까지 광주~진주~부산간의 경전선과 천안~군산~전주간의 장항선 연변에 光전송로를 구축하게 된다.

또 2단계인 95년말까지는 경인선, 경춘선, 동해남부선, 중앙선, 충북선, 태백선, 여천선변을 따라 인접한 도시간에 광전송로를 설치, 전국을 연결할 계획이다.

금성소프트웨어(주)

“하나저작시스템” 개발

金星소프트웨어(대표 黃철봉)는 최근 IBM PC호환기종 및 교육용 PC를 이용하여 일선에 있는 일반교사나 교육관련자들이 학생들에게 교육할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쉽고 간편하게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하나저작시스템”을 개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하나저작시스템은 시중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언어로 작성되어 있어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교육전문가가 내용을 수정, 보완하려해도 불가능한 점등 기존

의 문제점들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원하는 내용을 마음대로 작성,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발지원 도구이다.

한편 금성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방법으로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과 화학, 수학, 도감, 지리 등의 분야별 저작도구 및 마우스(Mouse)를 이용한 모든 데이터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 시스템의 기능을 계속 보완해, 연수원, 특수교육기관 등에서 필요로하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및 보조학습용 프로그램을 개발,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경영정보관리시스템” 개발

金星소프트웨어는 최근 소형제품 및 조립제품을 제조하

는 사출성형조립업체의 인사/급여, 판매, 생산, 자재, 회계 업무에 관한 각종 자료 및 현황을 중형컴퓨터와 개인용컴퓨터(PC)를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경영정보관리시스템”을 패키지로 개발, 공급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인사/급여, 판매, 생산등의 업무를 각각 독립적인 모듈 표준화된 패키지로 설계해 모든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각 단위 업무별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 시스템은 이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패키지 형태로 개발돼 시스템 설치가 용이하고 간단하며, 설치시 10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시켜 신속하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출성형조립업체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